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합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서울 강남노회 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

잠실 실내종합체육관에서 3월31(주) 새벽 5시에

서울 강남노회(노회장 이종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사 인류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새벽예배를 노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드리기로 정하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골라택하던 중 잠실 실내종합체육관을 계약하였다.

노회에서는 노회 산하 모든 교회가 적극 참여하여 부활절 새벽예배를 성대히 드리고 각각 교회마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번 서울 강남노회 연합 부활절 예배

에서 본 교회 이종윤 목사는 사회를 맡게 되며 말씀은 고홍수 목사(장신대 총장)가 전하게 된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이번 연합예배에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한편 이 예배의 준비를 위한 서울 강남노회 당회원 연석회의가 어제(3월9일) 본 교회당에서 있었다.

2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안내 팜플렛 발송

오는 4월1일(월) 오후 2시에 개강하는 2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준비가 한창이다. 금주 기독교계 신문을 통한 광고가 나왔으며, 별도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금주중 안내 팜플렛, 순례자를 동봉, 준비 완료하여 발송을 할 예정이다.

2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준비위원장(민순구 장로)은 우리교회가 11년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한국교계에 유례를 찾기 힘든 권위 있고 알찬 세미나로 평평이 나있으며 준비하는 서울교회와 참석하는 교역자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어왔으며 금번의 세미나도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봉사로 진행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하였다.

중등부 노방전도 3월10일(주) 11:00

중등부(지도 윤영국목사)는 지난 겨울수련회를 통해 받았던 큰 은혜를 감사하며 이 귀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노방전도를 계획하여, 오늘 1부 예배와 성경공부를 마치고 11시 교사들의 지도하에 교회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나선다.

아직은 어린 이 학생들이 복음의 귀중함을 깨달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는 오늘의 노방전도를 통해 많은 은혜 받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1부 가족예배 전체 현황 게재 교회 홈페이지에-3월3일 주일 1부예배부터

우리교회가 새예배당에 입당하며 시작한 '1부 가족예배'를 알리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봉사단은 교회 홈페이지(www.seoulchurch.or.kr)를 통하여 지난 3월 3일부터 1부 예배전체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1부 예배 현황은 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 하단 동영상 파트에 게재되어 있다.

'열렸다 하늘 문이' 출간



작년 5월 입당감사 10대 행사 가운데 하나인 찬양제에서 연주되었던 '열렸다 하늘 문이 (Open now thy gates of Heaven)'(이종윤 작시, 박정선 작곡)가 동진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칸타타 곡집 '열렸다 하늘 문이'는 이종윤 목사가 새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쓴 기도문에 박정선 집사가 아름다운 선율과 정감 있는 화음으로 곡을 붙여 탄생하게 된 것으로 박정선 집사는 전통적 기법과 한국적 정서를 담아 일반 교회찬양대가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작곡했다고 덧붙인다.

'열렸다 하늘 문이'는 교회창립일과 추수감사절, 부활절의 절기 연주에 사용될 수 있으며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고난, 부활, 구원, 승천 그리고 순례자의 노래를 내용으로 하며 총 8악장으로 구성되었다.

가격은 5,500원이며 1층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유아부 제3대 자모회 임원 선출

유아부의 자모회는 지난 2월 25일 총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3대 자모회 임원을 선출했다. 유아부 자모회는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 새 임원들과 회원들은 일년동안 교회와 유아부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

회 장: 이혜련 집사 부회장: 김경희 집사 총 무: 김진희 선생



◀사랑부, 고등부연합예배 "나 남의 가진 것 비록 없으나..."

비전2020후원자 명단(다음주에 계속)

- 강동욱 (3구좌) 김광태 (4구좌) 김구진 (3구좌) 김권집 (3구좌) 김만선 (1구좌)
- 김명숙 (3구좌) 김명옥 (3구좌) 김시온 (30구좌) 김영연 (1구좌) 김영주 (1구좌)
- 김종운 (1구좌) 김혜경 (3구좌) 김효진 (3구좌) 나연신 (3구좌) 노문환 (5구좌)
- 노순례 (3구좌) 노영숙 (3구좌) 문형순 (3구좌) 박경우 (5구좌) 박동원 (3구좌)
- 박두영 (3구좌) 박상희 (1구좌) 박정자 (4구좌) 박종민 (3구좌) 박정강 (2구좌)
- 서춘식 (3구좌) 서형렬 (2구좌) 송영강 (2구좌) 신현희 (3구좌) 양춘경 (3구좌)
- 예완식 (1구좌) 오주명 (1구좌) 왕경래 (3구좌) 이상태 (2구좌) 박속 (3구좌)
- 원복순 (2구좌) 유건호 (1구좌) 유윤지 (1구좌) 윤용미 (3구좌) 송영 (2구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개역개정판 출 20:12)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NIV Ex 20:12)

이사야 강해

참여배와 주일 성수

(이사야58장 10 - 14절)

안식일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초대교회가 예배일로 정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식일에 세상 영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자비와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60번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으로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일과 오락을 끊고 종일 토크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가 됩니다.



이중운 목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들에게 거저된 금식이나 헛된 의식이 아닌 참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며 그리하면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참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평적으로는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1.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는 회개하고 예배를 드린 후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참으로 회개할 것은 외식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신행일치가 있는 삶을 동반한 금식입니다.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10절).

압제받는 이를 자유 하게 하고 약자를 구속하는 명을 제하며 남을 경멸하는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남을 허는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은 참 예배의 소극적인 조건들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기울여 동정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여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웃에게 해서는 안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행하면 그것이 곧 참 예배가 됩니다.

2. 참 예배를 드린 자가 받을 복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10절).

참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만나 빛 안에서 살게 됩니다. 또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앞뒤에서 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호와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11절).

우리는 항상 자녀들로 인하여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참 예배의 신앙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른 곳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도 영혼이 만족할 것이며 생활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마른 광야에 물 댄 동산 같아서 예전 동산같이 윤택한 동산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거친 세상에서도

영적 생명력이 풍부하다는 말입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12절).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들의 후손들도 복을 받아 그 나라의 황폐한 곳을 새롭게 수축할지언정 결코 그 나라가 파괴되지 아니합니다. 새롭게 수축될 성읍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들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안식일 성수

유다 왕국의 말기, 곧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준수의 정신이 해이해졌습니다(대하 36:21). 그래서 안식일에 제물을 바치는 일까지는 행하였으나 그 후는 각각 자기 생업에 종사했습니다(렘 17:21-23). 이 같은 현상은 귀환기에도 있었습니다(느 10:31). 이 같은 배경에서 예언자는 안식일을 성수할 것을 명하고 가르쳤습니다.

①"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13절).

안식일에는 오락을 금했습니다. 경건하게 지내면서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이란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날에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②"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13절).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여 사육의 길을 가지 말며 주님의 뜻을 묵상하여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③"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13절).

말을 삼가 무의미하고 세속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로운 말은 영적 유익이나 사랑에 관한 말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사육을 채우는 즐거움은 금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영적인 즐거움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14절), 하나님께서 저들을 침략하지 못한 높은 곳에 두십니다. 이것은 그들은 위험 중에 건지시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탁월한 위치를 현저히 차지하게 됩니다(신 32:13).

또한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14절), 그들에게 준 가나안 땅을 그들이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과 유대교의 안식일, 그리고 신약의 주일을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의 안식일 제도의 목적은 성도들이 창조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고 출애굽을 통한 구원을 기념하게 하며 그리

스도로 이루어질 영적 안식의 예표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골 2:16-17).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일을 하지 않고(출 34:21), 나무를 하지 않으며(민 15:32, 35), 음식을 만들지 않고(출 16:23), 불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출 35:3). 또한 짐을 지지 못하고(렘 17:21), 상업을 하지 못하고(암 8:5),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립니다(민 28:9, 왕하 4:23). 그러나 구약에서도 안식일을 기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사 58:13).

그러나 유대교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의 의식을 성경 이상으로 발달시켜 극히 율법적으로 지켰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영적 요소와 도덕적 요소,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부득이한 경우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많은 세칙을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옷 만드는 직공은 안식일이 다가오는 저녁에 바늘을 가지고 출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미 안식일이 되기 때문이고 그 바늘을 안식일에 운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서기관은 글쓰는 펜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먼지가 묻은 옷도 털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미쉬나에는 이런 세칙들이 24개장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고 하십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성취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6-17).

안식일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초대교회가 예배일로 정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식일에 세상 영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자비와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눅 13:15, 마 12:7, 12).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60번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으로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일과 오락을 끊고 종일 토크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러분,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성수 주일을 하므로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안에서 문안드리며 주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전합니다.

선교사의 삶은 참 다양하고 진폭이 커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새로운 사역지는 총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어둠과 빛의 콘트라스트가 심히 큼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지 모르는 중앙아프리카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회를 몇 몇 현지인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저녁 시작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선교사님 두 분이 합류해서 고무적이었는데 특별히 마음이 굳고 완악해져서 재앙의 경고 나팔소리를 들어도 여전히 자리다툼에 빠져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와 선교사님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환란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 금요기도회에서는 한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성령님의 깊은 탄식을 느낍니다.

주님께 감사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제 거주와 정착을 위한 신학교 측과 학장님의 배려와 카메룬에서 무사히 때에 맞추어 도착한 제 짐들과 하루 시련 후에 오는 주님의 위로, 이 땅의 귀한 중보자들과의 만남, 2주 후에 프랑스에서 오게될 영적 특공대, "호라이즌 미션"의 세 친구들(롬, 마기, 장) -함께 감사해 주세요."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 중앙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문명속 선교사 (오른쪽 끝)

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시 50:23) 강의 안을 많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카메룬에서 행정적인 것들을 많이 맡다보니 강의가 많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방기 신학교에서 요청한 근대철학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될것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상의 부활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

교역자 기정을 찾아서 - 윤영국 목사 기정 편 "밝은, 어둠"



김영미 사모님과 은서(5), 은호(3) 두 형제를 가지신 윤영국 목사님은 지난 해 12월 23일 서울 교회에 부임하셨다. 현재 7, 8교구와 중등부, 주부대학, 찬양위원회 및 에스더 여전도회와 엘리야 남신교회를 섬기고 계신 윤목사님은 이 교회의 첫인상을 "밝음"으로 요약하셨다. 성탄예배

와 송구영신 예배를 연이어 드리면서 서울교회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안내를 맡은 분에서부터 찬양대원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잘 담당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밝고 환한 표정으로 기쁨에 넘쳐 지내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한다. 젊은 나이의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뜻을 잊지 않고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기억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아이들이 잠든 후에 귀가하신다는 윤목사님은, 아침저녁으로 아이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신다는 데, 아프지 않고 예쁘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절로 터져 나오는 감사를 느끼신다고. 결혼 6년 차에 접어드는 사모님과도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힌 곳과 갈등이 있는 곳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기에 늘 감사를 드리게 되신단다.

별명이 최고맨인 만이는 목사님의 외모와 사모님의 꿈콤한 성격을 닮았고, 둘째는 막내답게 덜렁대는 꼬마이다. 전혀 성격이 닮지 않은 두 아이들이 가정예배 시간에 작은

의 부활이 왜 같은 시기에 나타났으며 어떤 양상으로 각각 운동하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번 주가 지나갔습니다. 철학의 역사적 흐름보다 분석과 형이상학 쪽으로 더 치우친 프랑크 대학에서 철학을 배운 제계 신학교에서 원하는 철학사 강의는 철학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마스터하고 소화시킨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전하려니 강의가 시원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교수사역은 실상 저를 공부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제 기도 제목으로 오늘의 편지를 맺겠습니다.

-기도제목-

1. 학생들의 영적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강의와 신학교 안에서는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좋은 교제
2. 금요기도회를 통한 목사님들의 영적 각성과 선교사님들의 재충전
3. "호라이즌 미션" 친구들이 2주간 방기에서 펼칠 사역을 위한 준비
4. 매일 경건의 시간(말씀, 기도, 찬양)을 사수할 수 있게 그리고 금식하는 매주 토요일 전체 시간이 내 기도하는 "SWEET HOUR"가 되도록

고사리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목사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가정의 풍경이다. 아이들과 함께 "예수께서 가만"(300장)을 부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32)라는 말씀을 읽어내려 가노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정이 되기를 늘 기도하신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듯, 말씀이 먼저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하시는 윤목사님은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맘껏 사용하실 종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낙타무릎이 되도록 간구하고 계시다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당부하셨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끝나는데, 서울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곳에서 모든 방향이 끝나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특유의, 대구 억양 "믿습니다" 발음에 절로 '아멘'이 튀어나왔다. 밝음을 보려는 자에게 밝음이 보인다는 옛 격언처럼 서울교회의 밝은 모습을 사랑하게 된, 젊은 목사님과 행복 인터뷰였다. 편집부 (나소정)

10년사 집필 '감사패'를 받고

손재영(청년부)

당회에서 <10년사>를 편찬했던 팀에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감사패를 주셨으니, 저희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 교회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공부가 되었다는 것이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다시 한번 소중한 지체로서의 한 몸 의식을 다질 수 있었던 청년 지체들에게 고맙고, 또 순간 순간 응원해 주신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10년사>를 통해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힘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또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신 하나님, 부족한 청년들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민철(청년부)

서울교회 10년의 역사, 그 '은혜'의 출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토록 귀한 일을 맡기셔서 집필에서 탈고까지 시종 붙들여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직장 일과 이 10년사 집필을 동시에 감당하기엔 적잖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를 따라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주셔서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었기에 교회가 저에게 주신 "감사패"는 과분할 따름입니다. 이 감사패는 사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집필을 도와준 많은 청년들과 교회 어른들에게 드려야 할 상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셨습니다. 감사패는 이 분들 모두가 받아야 할 것이지만 저와 손재영 형제에게 주신 것은 더욱 충성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숨가뽀뽀 창립 당시의 모습과 10년 동안 서울교회가 해 온 각종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목도하면서 그 동안 우리 서울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과

감동,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회력에서 색의 의미 †

모세 성막에 사용된 청, 자, 홍, 백, 흑색은 영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사용되었다. 진홍, 흰 눈, 안셀 등 또 색을 비유 삼아 표현되어진 교리도 곳곳에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 회도 일찍부터 색을 사용하여 왔다. 예전 색의 순서는 1198년에 이노센트 3세가 정했다고 하지만 이미 교회는 일찍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색은 사용되어졌다. 그 색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보라색: 위엄과 존엄을 의미하여 왕을 상징하며, 청결과 영적 씻음을 의미한다.

흰 색: 성결과 순결을 의미하여 기쁨, 빛, 즐거움을 암시한다.

빨간색: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며 또한 성령의 불을 상징한다. 희생과 순교의 의미도 내포한다.

초록색: 영적인 성장과 희망, 성결, 생명을 상징.

2002년 겨울 수련회를 돌아보며



노창훈(청년부 회장)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백 명이 넘는 가족들이 참가할 줄은. 행사를 준비했던 청년부 임원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부 회원들이 직장인인 관계로 저희 청년부는 매년 겨울수련회 날짜가 2월 마지막 날부터 3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월말은 어느 직장이나 바쁘게 마련이고, 더구나 다음 날의 휴일도 평소의 피로를 그냥 잠으로 풀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는 그런 날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몸의 고단함보다 우리 청년부 가족들은 넘치는 말씀의 은혜에, 부족했던 교제에의 갈급함이 더 간절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간절함은 단순히 100명을 넘긴 인원동원의 성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날 저녁 정운돈 목사님의 말씀과 이어진 기도회는 우리들의 비전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세워지고 진행되어져야 함을 알게 해주었고, 이후 청년부 회

초로 시도되었던 성별모임, 즉 brotherhood&sisterhood에서는 이성간의 서먹함을 완전 배제한 싸나이들만의 모임을 가져 깊고도 색다른 교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sisterhood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네요...).

다음 날,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태훈 전도사님의 "결혼특강"이었습니다. 결혼하신 지 1년이 채 안 되는 새신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이태훈 전도사님께서, 다양(?)할 뿐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원칙에만 입각한 연애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배우자 선택방법, 결혼에 있어 준비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열강 하셨습니다.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두 시간 반에 걸친 강의였지만, 저희 청년부 가족들의 집중도는 그 어떤 프로그램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했던 성경퀴즈대회도, 잔디밭에서 함께 뒹굴었던 공놀이의 기억도 이젠 사진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보았던 청년부 부흥의 가능성, 함께 했던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임종원(고등부 부회장)

금년 겨울 수련회도 기대와 설렘 속에서 고등부 임원으로 처음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수련회도 몇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학생의 간증이였다. 1급 뇌성마비로 힘들어 보였지만 다른 정상인친구들과 봉사활동을 다니고 주님을 알리는 그의 모습은 내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남이 있는 것 나에게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없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1시간 남짓의 그의 간증은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였지만 간증하는 그 모습과 마음은 내가 감동할 만큼 건강해 보였다. 이어서 이태훈 전도사님의 "모든 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보자" 라는 강의를 듣고 나니 앞서 간증 때의 내용과 전도사님의 강의내용이 하나가 되어 내 마음 속에 자리잡음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솔직히 여름수련회 만큼 긴장감은 없었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또 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몸은 피곤하였으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찬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대하였던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와 서로의 연합을 배우게 하신 예수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린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박선영(중등부)

이번 수련회에서 나는 많은 경험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마친 수련회는 지난해보다 뜻 깊었다. 재미있는 게임도 인상 깊었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울린 것은 둘째 날에 있었던 장애우 학생의 간증이였다. 내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질 만큼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았고 나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아니 그리고 있다. 그의 간증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실한 마음이 한사람 한사람을 울리고 있었다. 나도 그 중의 하나이다. 나는 어느새 반성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분의 훌륭함에 나는 고개를 숙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었다. 수련회를 마치며 프로그램 하나 하나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신앙을 키워나가겠다.

인터넷 기독교사이트의 문제점 (III)

3. 콘텐츠의 한계

기독교사이트는 기독교라는 이름만 있을 뿐 쓸만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바로 콘텐츠의 한계인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사이트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네티즌들은 잠시 클릭해보고 볼 내용이 없으면 다시는 찾지 않는 것이 그들의 생리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살아있는 내용에 충실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분명 기독교 사이트가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기존의 대형사이트들이 구현하고 있는 '전방위적 콘텐츠'와 같은 종류들은 기독교 사이트에서 허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C.C.M, Q.T, 성경이론 강좌, 기독교인들의 커뮤니티등의 콘텐츠 외에 기독교네티즌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며 그것은 기독교사이트를 책임진 자들이 연구하고 보충, 발전시켜야 할 숙제인 것이다.

맺는 말

3주동안 기독교사이트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재도 많은 기독교사이트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독교 사이트들이 늘

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불었던 인터넷 열풍, 이른바 닷컴 열풍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유행으로 번지면서, 이를 좋게는 기독교 문화의 확산을 위해, 아니면 나쁘게는 돈벌이를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것이 곧바로 기독교 사이트의 급증을 불러 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 말고도, 우리의 생활 속에 인터넷이 깊숙이 침투한 것과 함께 기독교에 관한 정보 역시 인터넷을 통해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점도 사이트가 많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인터넷상의 각 기관이나 개인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법률적인 제약도 받지 않으며 인터넷에 속한 어떤 기관도 인터넷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지 못한다.

기독교 사이트가 많이 생기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사이트들이 생기다 보니, 질적인 저하가 뒤따르게 되고, 난립한 사이트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용을 과대 홍보, 이윤을 앞세운 상업화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이런 사이트들의 난립으로 발생되어질 비합리화된 믿음, 사회화를 표방하는 가상교회, 상업화를 내세운 사이트

들은 잠시 박스 갈채를 받을지는 모르나 믿음을 일깨우거나 불신자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어려울 것이다. 편집부(유은경)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1일(월)로잔위원회를, 12일(화)강남노회 시찰장회의를 각각소집한다. 15일(금)에는 전군 군중목사 세미나에서 특강을 한다.
- 이갑진 장로(12교구, 영여성경부 부장)는 우리교단 군목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2월13일) 군목을 정예화하고 군간 부를 제자화하라는 제하의 강연을 했다.
- 이영주 집사(12교구 김동훈 집사아내),청담 고등학교 교감으로 발령.
- 김연정 권사(12교구) 장독 10개 기증
- 이사: 정종덕 집사·홍순덕 집사·논현동으로 02)543-7130

☞금주의 식사제공: 흥성주장로·여현진권사기정 자녀의 결혼을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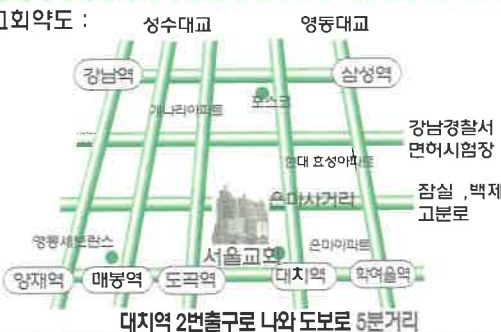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1학기목회자세미나·성경대학·경로대학·주부대학을 위하여
2. 사순절 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